

개학연기 기간 긴급돌봄은 '그림의 떡'

수용시설 부족 신청 대상 제한 아이 맡길 곳 없는 학부모 발동동 가족돌봄휴가제도 실효성 의문 코로나 장기화엔 보육대란 우려

상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닥쳐올 '보육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맞벌이 가정의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교실을 운영해왔다.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 돌봄전담사가 관리를 맡아왔다. 유치원은 오전 수업을 마치면 이후 담임교사와 방과 후 담당교사가 원아들을 돌보는 서비스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긴급돌봄 서비스와 가족돌봄휴가제 등의 실효성에 대해 학부모들은 미심쩍어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개학 연기와 함께 '모든 신청자가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교육청이 긴급돌봄 신청 대상을 기존 돌봄교실 이용자로 제한하는 등 정부 지침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이모(43)씨는 "지금까지 긴급돌봄을 신청하지 않았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개학 연기 기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불만이 팽배하다"면서 "개인 사정이 아닌 코로나19 여파로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것인데, 교육청 차원의 추가적인 돌봄 대책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새로 돌봄 범위에 포함되는 신입생의 경우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첫째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에 앞둔 학부모 최모(36)씨는 "정식으로 입학했다더라도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텐데, 입학도 하지 않은 학교에서의 돌봄이 아니 걱정인"이라며 "낯선 공간에서 낯선 이들과 생활하면서 받을 아이의 심리적 불안감을 어떻게 할 거냐"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정부와 기업이 육아를 직접 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회사원 손모(34)씨는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모를까 아이 돌봄을 위해 일주일 휴가를 내주는 곳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감염 우려 때문에 돌봄교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 밖에 안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이모(42)씨도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개학 연기 방침에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당장 아이를 맡아 줄 곳이 없는 맞벌이 부모들의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면서도 꼼꼼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맞벌이 부부 휴가 의무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중국 유학생들 위한 '코로나19' 예방용품 26일 광주시 동구보건소 직원들이 기숙사에 격리되어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용품을 포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호남대 기존 입학식 취소 3월 2일 '온라인 입학식'

호남대학교가 신입생 입학식을 온라인 입학식으로 대체했다.

호남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학식을 취소했으나, 신입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축하해주자는 취지에서 요즘 세대에 맞는 입학식을 준비했다고 26일 밝혔다.

호남대의 2020학년도 온라인 입학식은 오는 3월 2일 오전 11시부터 30여분 동안 유튜브 '호남대TV'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대학 통합뉴스센터와 신문방송학과 주관으로 실시되는 입학식은 학사보고와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박상철 총장 환영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학생 밴드인 '블랙베어'와 교직원 밴드인 '지극정성' 연합밴드의 축하공연 등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이 시국에... 광주 남구 선별 진료소 앞서 교회 신축 반대 집회

방립2동협의회 28일까지 예정

경찰과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는가 하면, 집회 제한 대상 장소도 대폭 확대하는 상황에서 광주 남구의 일부 주민들이 감염 의심 증상자들이 찾는 선별 진료소 앞에서 집회를 일주일 동안 개최하기로 해 비난이 일고 있다.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광주시 남구 등에 따르면 새마을회를 비롯,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방립2동마을협의회는 지난 17일부터 남구청 앞에서 '방립동 남선교회 신축허가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시 남구 방립동 일대 부지(2425㎡)에 들어설 예정인 교회 건축을 불허해야 한

다는 게 이들 주장으로, 이들은 "코로나도 심각하지만 주민들은 교회 설립 불허가 더 절실하다"며 오는 28일까지 남구청 앞에서 관련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방립2동마을협의회측은 "교회 부지는 방립동 주민들이 2년여 전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요구했던 곳"이라며 "교회가 생기면 교통체증과 소음 등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회 장소인 남구청 앞에는 감염

이 의심되는 증상자들이 찾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집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정부가 최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집단행사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침을 개정, 이벤트성 행사나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의 연기·취소를 권고한데다, 서울시 등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도심 집회를 금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오는 2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교회 건립 등 개발 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6 달뜨기 09:06
해질 18:25 달질 21:39

구름 낀 하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2/13	보성	구름많음	0/10
목포	구름많음	3/9	순천	구름많음	3/11
여수	구름많음	5/10	영광	구름많음	2/11
나주	구름많음	0/13	진도	구름많음	3/10
완도	구름많음	3/12	전주	구름많음	2/12
구례	구름많음	1/12	군산	구름많음	2/11
강진	구름많음	2/12	남원	구름많음	2/12
해남	구름많음	1/12	축산도	구름많음	5/9
장성	구름많음	1/1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안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면바다(북)	북~북동 1.0~2.0	북동~동 1.0~2.0	
	면바다(남)	북~북동 1.0~2.0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안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면바다(서)	북~북동 1.5~2.5	북동~동 1.0~2.0	
	면바다(동)	북~북동 1.0~2.0	북동~동 1.0~2.0	

◇ 생활지수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31	04:15
여수	21:52	16:34
	04:56	11:18
	17:20	23:31

◇ 주간 날씨

28(금)	29(토)	3/1(일)	2(월)	3(화)	4(수)	5(목)
☁	☁	☁	☀	☁	☁	☀
5/8	5/16	6/15	4/13	2/11	2/9	1/10

전남교육청 '남도민주평화길' 프로그램 개발

역사체험학습 자료 엮어

전남교육청이 도내 22개 시·군에 산재한 독립과 평화, 민주주의 유적들을 발굴, 현장 체험학습용 자료로 엮은 '남도민주평화길'을 개발했다.

26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남도민주평화길은 학생들이 민족의 독립과 평화, 민주주의 정신을 배우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해 민주시민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형태로 제작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체험학습자료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역사학계 등

전문가 30여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지역에 산재한 사료와 유적을 발굴했다.

발굴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한말의 병,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분단과 한국전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 민주화운동에 이르는 시기까지이며 현장 교원과 전문가 11명의 검토를 받아 완성했다.

개발진은 국가보훈처 공훈록 등 공식 자료와 대조하는 엄격한 고증과 재조명을 통해 '지역을 빛낸 인물' 편과 '독립의 길', '평화의 길', '민주의 길'로 나눠 현장체험학습 콘텐츠를 엮어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 천주교회 236년 역사 첫 모든 미사 중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 16개 모든 교구가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천주교회 236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6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16개 교구 중 14개 교구

가 미사 중단 조치를 한 데 이어 이날 제주와 원주교구가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다.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대구대교구를 시작으로 이어진 미사 중단 사태는 일주일 만에 국내 천주교 교구 전역으로 확산했다.

/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거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